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252 호

2021 년 7 월 1 일

- 목 차 -

■ 협회 소식

1. 2021 년 ESG 실무그룹 2 차 미팅 안내 (7/15)

■ 본부 소식

1. COVID-19 로부터 더 나은 회복을 위해, 각국 정상, CEO 및 UN 책임자들,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업의 신속한 조치 촉구 위한 협력 약속
2. UNGC CFO 태스크포스, SDGs 를 향한 민간 부문 투자 위해 KPI 설정
3. UNGC, 반부패 공동노력 플레이북 발표
4. UNGC, 2021 SDG 선구자 (SDG Pioneer) 발표
5. 레고(LEGO) 재단, 책임경영교육포럼(PRME)에 600 만 달러 리더십 교육 지원

■ SDGs 소식

1. [COVID-19 와 기업 지속가능성] UNGC 회원사 대응 사례 - 한국중부발전
2. [SDGs 솔루션] 플라스틱 폐기물을 타일 형태로 변환하는 태양열 'Trashpresso'

3. UNGC 회원 뉴스

1. 서울주택도시공사 '직장 내 혐오표현과 차별' 인권 토크콘서트 개최
2. 블랙록이 '아름답다' 평가한 포스코의 ESG 시스템
3. 우리은행, 여성리더 양성 '우리 WING' 1기 발대식
4. SK하이닉스, 협력사 대상 1000억 규모 'ESG 펀드' 조성
5. 페트병이 티셔츠로...GS의 '업사이클링 매직'

■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2020년도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안내
4. UNGC 로고 사용정책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협회 소식

1. 2021 ESG 실무그룹 2차 미팅 안내 (7/15)

2021 ESG 실무그룹 2차 미팅 안내 (7/15)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7월 15일 ESG 실무그룹 2차 미팅을 개최합니다.

2차 미팅에서는 「ESG 투자 전략 사례 및 기업 리스크 관리」, 그리고 「ESG 성과 측정 및 평가」에 대해 각각 지속가능발전소와 SASB의 발표를 들어봅니다. 또한 국내 기업의 사례 발표를 통해 「ESG 글로벌 대응」 및 「ESG 전략 내재화 방안」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참여사 간 ESG 현황을 공유하는 세션을 가질 예정이니, 신청 기업은 ESG 현황 공유를 위한 간략한 발표자료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중심 ppt 2장 내외, 2분 공유 예정, gckorea@globalcompact.kr로 7월 9일까지 제출)

< 프로그램 상세 안내 >

- 일시 : 7월 15일 (목) 14:30 -17:30
- 장소 : 모임공간 상연재 별관 (시청역과 광화문역 사이 위치, 하단 약도 참고)

시간	프로그램
14:30 - 14:35 (5')	인사말 - UNGC 한국협회 권춘택 사무총장
14:35 - 15:20 (45')	(발표) ESG 투자 전략 사례 및 기업 리스크 관리 - 지속가능발전소 윤덕찬 대표
15:20 - 15:55 (35')	(영상) ESG 성과 측정 및 평가 - Nicolai Lundy (Partnership & Market Outreach Director, SASB)
15:55 - 16:00 (5')	휴식
16:00 - 16:15 (15')	(사례 1) ESG 전략 내재화 - 두산중공업 정지영 과장
16:15 - 16:30 (15')	(사례 2) ESG 글로벌 대응 - 포스코 도상엽 과장
16:30 - 17:30 (60')	참여사 ESG 현황 공유 - 진행: UNGC 한국협회 이은경 실장



* 본 미팅은 ESG 실무그룹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사무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이수란 팀장 (02-749-2182)/이상현 과장 (02-749-2150))

[더 알아보기](#)

본부 소식

1. COVID-19 로부터 더 나은 회복을 위해, 각국 정상, CEO 및 UN 책임자들,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업의 신속한 조치 촉구 위한 협력 약속



20,000 명이 넘는 비즈니스 리더, 국가 정상, 시민 사회 지도자 및 유엔 대표들이 함께 모인 리더스 서밋은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향한 진전을 가속화하고,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야심찬 목표 달성을 촉구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올해 유엔글로벌콤팩트 리더스 서밋에서 각국의 정상, 수십 명의 CEO 및 UN 최고 책임자와 함께 기후 변화, COVID-19 팬데믹, 악화되는 사회 및 경제적 불평등, 사각지대에 있는 부패에 대한 지속가능한 회복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리더스 서밋 환영사에서 안토니오 구테흐스 (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 겸 유엔글로벌콤팩트 이사회 의장은 "전례 없는 수준의, 세계적인 협력을 통해서만 전염병으로부터 벗어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고, 기후 변화의 최악의 영향을 피할 수 있다. 기업은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노력과 리더십에는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 동시에 혁신적인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 2030년 아젠다와 파리 기후변화협정이 요구하는 사회 경제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훨씬 더 깊고, 빠르고, 야심찬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산다 오잠보 (Sanda Ojiamb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지난 정상 회의 이후 이례적인 한 해를 보내며 인류가 목도한 다양한 사건들은 우리의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하고, 또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평등한지 증명했다. 전염병, 경제 위기, 기후 비상 사태 속에서 정상 시와 같이 비즈니스는 용납되지 않으며, 더 야심찬 목표를 가질 때" 라고 말했습니다.

산다 오잠보 (Sanda Ojiambo) 사무총장은 이어 Expo 2020 두바이와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위한 추가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Expo의 글로벌 목표 주간 (2022년 1월 16일-22일) 동안 지속가능발전목표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알록 샤르마 (Alok Sharma) COP 26 의장은 “Race to Zero 는 COP26 의 핵심 이니셔티브로써, 기업, 투자자, 도시, 지역, 모든 종류의 조직에게 참가를 권하고 있다. 1.5 도 유지를 위하여 각자 역할이 있다. 영국은 각국 정부에 기후 조치를 늘 권장하고 있으며, 경제 전반에 걸쳐 수용할 것을 분명히 했다.”며 Race to Zero 캠페인 1 주년을 맞이하여 2050 년까지 넷-제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리더스 서밋은 100 여개의 글로벌 및 지역 세션을 포함하여 26 시간 이상 연속적인 비대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기업, 시민사회, 정부, UN 의 리더들로 하여금 협업과 민관 파트너십의 중요성에 대해 되새기고, SDGs 달성 및 기후행동 가속화를 약속하도록 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기업 행동에 대한 야심 향상 (Elevating Ambition for Corporate Action)"이라는 주제의 세션에서, 비즈니스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성의 대담하고 빠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향후 3 년간의 새로운 전략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기업 책임성 향상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요구사항에는 넷-제로 여정과 함께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고, 유엔글로벌콤팩트 네트워크의 지역 균형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국가의 고유한 상황에 적응하는 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에너지를 국가 및 지역 경제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지 수준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보다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2030 년 아젠다의 재정 재원을 위한 파트너십을 비롯하여 UN 파트너들과의 보다 적극적인 비즈니스 참여를 촉진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SDG 앰비션 액셀러레이터(SDG Ambition Accelerator) 프로그램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과감하고 가시적인 목표를 설정 및 달성하기 위해 추가 참가자들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폴 폴먼 (Paul Polman) 유엔글로벌콤팩트 부회장은 액센추어와 협력하여 기업 및 CEO 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엔글로벌콤팩트 2021 설문 조사 결과 발표에서 CEO 의 79%가 COVID-19 팬데믹을 통해 보다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ESG"를 의미 있는 기업 지속가능성 행동과 연결 짓는 방법을 모색한 "2030 아젠더 및 파리 협약 조달" 세션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 CFO 테스크포스는 SDG 투자 및 금융에 대한 CFO 원칙 구현을 향한 진행 상황을 측정하기 위해 핵심 성과 지표(KPI)를 발표했습니다.

CEO 패널 토론 "과학 기반 목표 설정을 위한 진보 가속화 (Accelerating Progress Towards Setting Science Based Targets)" 세션에서는 민간 부문이 녹색 회복을 지지하면서, 탄소 제로 경제를 지향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제시하기 위해, 강력한 시장 신호를 보내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확장하는 기업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세션은 과학 기반 목표로부터 만들어진 유엔글로벌콤팩트와 CDP 의 최근 보고서 결과에 기반하여, G7 의 주요 주가 지수가 섭씨 1.5 도 및 2 도 상승 제한 목표와 제한하는 목표와 불일치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변혁적 거버넌스로 가는 길: 평화, 정의, 강한 기관을 위한 비즈니스 프레임워크 론 (The Road to Transformational Governance: Launching the Business Framework for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세션에서는 비즈니스 문화, 윤리 및 성과를 강화하고 최근 출시된 “SDG 16 비즈니스 프레임워크: 변혁적 거버넌스를 위한 청사진 (SDG 16 Business Framework: A Blueprint for Transformational Governance)”을 기반으로 공공 기관과 법률,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ESG 중 “G”의 행동을 가속화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반부패를 위한 연합: 유엔글로벌콤팩트 반부패 공동노력 플레이 북 발간 (Uniting Against Corruption: Launch of the UN Global Compact Anti-Corruption Collective Action Playbook)”이라는 제목의 고위급 세션에서는 시민 사회와 공공 부문, 기업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의 공동행동(Collective Action) 방법론에서 도출한 6 단계 접근 방식을 통해 어떻게 부패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유엔글로벌콤팩트 리더스 서밋은 인권, 환경, 노동 및 반부패에 관한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의 이행을 통해 글로벌 목표를 이루기 위해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10 명의 "2021 SDG 선구자 (SDG Pioneers)"를 선정했습니다.

올해 행사에는 할리마 야콥(Mdm Halimah Yacob) 싱가포르 대통령, 앤드류 홀니스 (H.E. Andrew Holness) 자메이카 총리, 김부겸 (H.E. Kim Boo-kyum) 대한민국 총리, 모니크 은자바간와(Mr. Monique Nsanzabaganwa) 아프리카 연합 위원회 부회장, 에릭 토히르(Erick Thohir),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장관, 마리나 세레니 (Ms. Marina Sereni) 이탈리아 외교 및 국제협력 차관, 빌 스킨나리(Mr. Ville Skinnari) Minister for Development Cooperation and Foreign Trade, Finland; 니엘스 아넨(Niels Annen) 독일 주, 연방 외무부 장관, 비르기타 타젤라르(Ms. Birgitta Tazelaar) 네덜란드 국제 협력 차관, 자로시스카-예디나크 (Ms. Jarosińska-Jedynak) 폴란드 개발 기금 및 지역정책부 국무장관, 안나 카린 에네스트롬(Anna Karin Enestrom) 스웨덴 유엔대표부 상임이사, 위사누 크레아응 (Dr. Wissanu Krea-Ngam) 태국 부총리, 솔탄 빈 사드 알 무라이키(Mr. Soltan bin Saad Al-Muraikhi) 카타르 외무장관, 하워드 보이드(Howard Boyd) 영국 환경부 의장 등 정부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아미나 J. 모하메드(Amina J. Mohammed) 유엔 사무차장, 잉거 안데르센(Inger Andersen) UNEP 총장, 미셸 바첼렛(Michelle Bachellet) UN 인권고등판무관, 샤란 버로우(Sharan Brough) ILO 사무총장, 그리고 대런 워커(Darren Walker) 포드 재단 회장을 비롯하여, Accenture의 CEO 줄리 스위트(Julie Sweet), Natura & Co의 CEO 로베르토 마르케스(Roberto Marques), Schneider Electric의 CEO 장 파스칼 트리코아르(Jean-Pascal Tricoire), Enel의 CEO 프란체스코 스타라체(Francesco Starace), Imagine의 회장이자 유엔글로벌콤팩트 이사회 부회장 폴 폴먼(Paul Polman), East African Breweries Ltd의 상무이사이자 CEO인 제인 카루쿠(Jane Karuku), Bank of Industry, Nigeria의 CEO인 올루카요데 피탄(Olukayode Pitan) 등 24 명의 CEO가 연사로 참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2. UNGC CFO 태스크포스, SDGs 를 향한 민간 부문 투자 위해 KPI 설정



유엔글로벌콤팩트 CFO 태스크포스는 KPI 를 활용하여 기업 재무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통합하도록 지원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CFO 태스크포스는 2021년 6월 15일, 1조 6천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을 기록하는 58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 투자 및 금융에 관한 CFO 원칙'을 위한 주요 성과 지표(KPI)를 발표했습니다.

본 내용은 2021 UNGC 리더스 서밋 중 ESG와 의미 있는 기업 지속가능성 활동을 연결하는 것이 투자자와 기업들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모색하는 "2030 아젠다 및 파리협정 자금조달(Financing the 2030 Agenda and the Paris Agreement)" 세션에서 발표되었습니다.

1년 전 런칭한 CFO 원칙은 SDGs 금융 및 투자를 위한 최초의 UN 기반 원칙으로써 기업들이 SDGs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 약속을 기업 재무 전략과 연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새로운 KPI는 SDGs를 기업 재무에 통합하는 벤치마크 역할을 합니다. 또한 CFO는 태스크포스의 구성원으로서 KPI를 활용하여 개별적, 전체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본 KPI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 구현에 있어서 책임 메커니즘의 필수 요소가 될 것이며, CFO 원칙과 결합을 기반으로 기업 관행에 지속가능성을 통합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정착될 것입니다.

연간 14 조 달러가 넘는 기업 투자 관리자로서, 또한 올해 유엔글로벌콤팩트 CFO 태스크포스 회원국들의 발표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CFOs 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의 원동력입니다.

- 1 월, Tesco 는 7 억 5 천만 유로 규모의 지속가능성 연계 채권을 발행했으며, 이는 처음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는 기업의 약속과 연계한 것입니다.
- 지난 1 월, 중남미 최대 투자은행인 BTG Pactual 은 5 억 달러 규모의 그린 채권을 조성했습니다. BTG Pactual 은 올해 2 월 해당 채권을 전 세계 지속가능 채권 발행에 대한 미국 증권 거래소의 정보 데이터베이스인 나스닥 지속가능 채권 네트워크 (NSBN)에 등록했습니다.
- 지난 2 월, AB InBev 는 101 억 달러 규모의 지속가능성 연계 회전신용기능(revolving credit facility)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 지난 6 월, Enel 은 Eurobond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를 위한 총 32 억 5 천만 유로 규모의 멀티트란슈(multi-tranche) 지속가능성 연계 채권을 발행하였습니다. 본 지속가능성 연계 채권은 고정 수입 자본 시장에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CFO 태스크포스는 Enel 의 알베르토 드 파올리 (Alberto De Paoli) 와 Core Stregies, PIMCO 의 스캇 에이 매더 (Scott A. Mather)가 의장을 맡고 있으며, 기업 금융이 금융 시장, 세계 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혁신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장기적으로 CFO 의 역할에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의 설계자로서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2019 년 12 월, 유엔글로벌콤팩트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회원 목록은 www.cfotaskforce.org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링크에서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링크](#)

[자세히 보기](#)

3. UNGC, 반부패 공동노력 플레이북 발표



기업 및 기타 시민 사회, 공공 부문의 이해당사자를 위한 부패 척결 지침이 2021년 6월 17일 리더스 서밋 세션에서 공식 런칭되었습니다.

지난 리더스 서밋 고위급 세션 “반부패를 위한 연합: 유엔글로벌콤팩트 반부패 공동노력 플레이북 발간 (UNITING AGAINST CORRUPTION: Launch of the UN Global Compact Anti-Corruption Collective Action Playbook)” 에서는 BASF 사 (社), 우크라이나 부패방지청,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 그리고 유엔글로벌콤팩트 인도 네트워크의 연사들과 함께 개최되었습니다. 발간물은 최근 마무리된 ‘유엔 부정부패방지 유엔총회 임시총회(UN General Assembly Against Corruption)’ 방향성을 따르고 있습니다.

반부패 공동노력 플레이북은 6 단계 접근 방식을 통해 지역 부패 환경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이해 관계자를 식별 및 참여시키며, 공동노력 방법론을 적용하여 식별된 부패 문제를 해결하고 잠재적인 비즈니스 위험을 완화하도록 지원합니다. 민간 부문의 노력은 전통적으로 국제 및 국가 법률 및 규제 표준과 프레임워크에 대한 대응으로 내부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공동노력은 기존 규정을 보완하거나, 규제가 없거나 시행되지 않을 시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산다 오잠보 (Sanda Ojiambo) 사무총장은 이번 플레이북 런칭에 대해 “부패는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저해하고 공공 기관과 기업에 필수적인 신뢰를 약화시켜 공급과 자원을 낭비시킬 수 있다. 공동노력은 모든 시장 참여자들의 청렴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본 플레이북은 개별 회사의 힘 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한 시스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툴” 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부패 공동노력 플레이북은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중 열번째 원칙인 "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에 기반합니다. 플레이북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프로젝트 중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 (Siemens Integrity Initiative)의 펀딩을 받아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글로벌콤팩트 로컬 네트워크와 함께 반부패 공동노력 확대(Scaling up Anti-Corruption Collective Action within Global Compact Local Networks)”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다음의 링크에서 플레이북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링크](#)

[자세히 보기](#)

4. UNGC, 2021 SDG 선구자 (SDG Pioneer) 발표



유엔글로벌콤팩트는 2021년 6월 15일 인권, 환경, 노동 및 반부패에 관한 UNGC 10대 원칙의 이행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발전에 우수한 역할을 해온 새로운 SDG 선구자들을 발표했습니다.

SDG 선구자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직급과 무관하게 선정하였으며, 수상자들은 전 대륙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산다 오잠보 (Sanda Ojiamb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COVID-19의 대유행으로 인하여 담보가 거둬지는 상황 속에서 기업들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이들처럼 뛰어난 전문가들은 주주들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이익이 되는 차이를 만들기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들이 다른 이들로 하여금 더 나은 세상 속에서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2021 SDG 선구자 (SDG Pioneer) 수상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리안 맥베인(Darian McBain), Thai Union Group PCL, 태국
- 수만트 신하(Sumant Sinha), ReNew Power Limited, 인도
- 로버트 오킨(Robert Okine), Bewsys, 가나
- 레오니 바스(Leonie VaaS), Hayley Fabric PLC), 스리랑카
- 미릴 크라비에(Mirille Chrabieh), S-miles Center, 레바논
- 안톤 부트마노프(Anton Butmanov), EN+GROUP IPJSC, 러시아 연방
- 카린 부에노(Karine Bueno), Banco Santander S/A, 브라질
- 손나이 아이칸(Sonay Aykan), Colgate-Palmolive Company, 미국
- 앨런 커디(Alan Cuddihy), PCH, 아일랜드
- 줄리아 주프레(Giulia Giuffrè), IRITEC S.P.A., 이탈리아

SDG 선구자(SDG Pioneer)의 심사에는 역대 수상자들, 학계 및 유엔의 기관 대표자들과 함께 UNGC 전문가 네트워크 대표로 구성된 패널들이 참여했습니다. 선정 기준에는 UNGC 10대 원칙을 기업의 핵심 전략에 포함시키려는 개인의 노력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발전을 위한 노력, UNGC 및

지역 네트워크의 참여정도가 포함되었습니다. 2021 년 SDG 선구자 (SDG Pioneer) 수상자들은 유엔 글로벌 Leaders Summit 2021 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5. 레고(LEGO) 재단, 책임경영교육포럼(PRME)에 600 만 달러 리더십 교육 지원



The LEGO Foundation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이니셔티브인 책임경영교육포럼(PRME)은 레고 재단으로부터 리더십 교육 분야의 전체적 기술 개발 위한 600 만 달러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3 년에 걸쳐 전달되는 이 지원금은 유엔글로벌콤팩트 구성원에게 수여되는 단일 최대 규모로, 오늘날 경영학도들이 미래의 민간 부문을 보다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PRME의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The Impactful Five (i5) : Learning in Leadership Education 프로젝트는 선행된 레고 재단의 연구 및 기존 전문 지식에 기반하여, 차세대 리더들의 전체적 능력 개발 위한 교육적 접근 방식을 개발하고 안내하여 이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존 굿윈 (John Goodwin) 레고 재단 CEO는 "PRME와 협력하며 전체적 기술 개발에 대한 우리의 연구와 학습이 미래의 리더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 며, "이러한 리더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21 세기의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PRME 글로벌 책임자 메트 모싱 (Mette Morsing) 박사는 "교육과 지속가능한 발전 분야에 있어 세계적인 롤 모델인 레고 재단의 지원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본 지원금은 혁신적인 리더십 교육에 대한 PRME의 전략적 사명을 발전시키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집단적인 자극을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본 글로벌 프로젝트에는 2021년 9월 1일 프로젝트의 공식적인 시작에 맞춰 PRME에 서명한 학교와 대학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평가 및 학습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PRME의 전략적 파트너로는 Sulitest가 선정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SDGs 소식

1. [COVID-19 와 기업 지속가능성] UNGC 회원사 대응 사례 - 한국중부발전



UNGC 가입: 18. 4. 18

한국중부발전은 2001년 4월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전력자원의 개발과 안정적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보령발전본부를 비롯한 7개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설비용량 10,727MW를 보유하여 국내 전력생산의 8.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기준)

당사는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하는 대표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발전사업 경쟁력 제고, 친환경 사업선도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충청남도 보령시로 본사를 이전한 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복지 향상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맞춤형 지원 시행

중부발전 노사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노사공동 TF'를 개최하여 착한 소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취약계층에 마스크 및 세정제를 보급하고, 지역내 소독 방역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로의 감염을 차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농산물, 화훼농가, 지역상품권 등의 구매를 통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와 소비진작에 앞장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 19 격리시설이 운영되던 아산과 진천 지역에 위생용품과 생필품 공급을 위해 2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계속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제품 우선구매, 지역산업 육성, 주민지원 공헌사업에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호복 1만벌 기부, 인도네시아의 의료진 지킨다

중부발전은 코로나 19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10만달러 상당의 방호복 1만벌을 인도네시아 중앙 재난지청(BNPB)과 운영사업장이 위치한 짜레본, 쯔빠라, 까로, 람퐁 지방정부에 기부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운영 중인 짜레본 발전소는 짜레본시와 협약을 맺고 발전소에서 생산한 치아염소산 나트륨(NaOCl)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치아염소산 나트륨은 흔히 ‘락스’로 알려진 살균제입니다. 중부발전은 발전소 내 해수담수화 중간처리 과정에서 치아염소산 나트륨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물질을 짜레본 방역당국에 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부물량은 코로나 19 종결시까지 하루 약 10톤이 공급됩니다.

혈액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다

중부발전은 코로나 19 치료로 인한 헌혈감소로 혈액수급이 악화됨에 따라 본사를 포함한 전국 7개사업소 임직원 600여명이 헌혈행사에 참가하였습니다. 헌혈차의 사업소 방문 및 직원의 혈액원 직접방문을 통해 헌혈을 함으로써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공동 금융지원을 위한 ‘KOMIPO 코로나 19 피해기업 지원 펀드’ 조성·운영

중부발전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협력기업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코로나 19 중소기업 피해 지원센터’ 핫라인을 개설하고, 긴급 경영안정자금 대출,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 중소기업 제품 전용 온라인 복지물(동반성장물)을 통한 예방물품 지원 등 협력기업 종합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행과 공동 Z으로 ‘동반성장 상생펀드’ 긴급 경영안정자금 대출 20억원을 조성해 코로나 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금리보다 최소 1.2% 이상 금리감면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예산 중 조기 집행을 통해 1,279억원 상당의 중소기업 제품구매 및 용역·공사 발주로 협력기업의 피해극복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감염병 위기대책본부 운영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위기대응 심각단계를 '20. 2월 발령하고, 경영진을 포함한 감염병 위기대책본부를 구성하였으며, 코로나 19 위기대응 상황실을 가동하여 직원, 협력기업직원, 외부방문객으로 구분한 자가진단 제도를 통하여 감염 우려자를 매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예방격리를 시행하였 습니다. 사외교육 중지, 해외출장 금지, 대면회의를 화상회의로 대체,

국내출장 자제, 근무지 외 이동 자제, 해외 입국가족이 있는 직원의 예방조치 등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및 가상회의 시행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임직원 유연근무제를 적극 시행하였고, 재택근무 또한 임신부 등 고위험군, 자녀 돌봄이 필요한 직원 등을 우선하여 부서별 1/3 수준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CEO와 함께 온라인 간담회와 사업소 온라인 구매상담회 화상회의 시행, 국내 사업장 및 해외사업장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하여 신속한 의사소통, 의사결정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항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대상 보건 및 복지 서비스 제공

중부발전 임직원의 코로나 19 예방 및 차질 없는 전력공급을 위하여 회사 출근시 발열체크, 사무실 및 출입구에 손소독제 및 체온측정용 열화상 카메라 비치 등 개인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전 청소시간을 활용하여 사무실, 엘리베이터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내부 방역활동을 시행하고, 코로나 19 블루 극복 및 면역력 강화를 위한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상담, 부족한 운동량 확보를 위한 홈트레이닝 도구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중부발전 코로나 확진자 '0'

한국중부발전은 현재 협력기업 직원을 포함하여 코로나 19 확진자 및 의심자 '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확진자 발생 시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단계별 감염병 비상대응 및 업무지속계획(BCP)을 수립하여 위급상황에 대하여 철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사 및 사업소에 필수 필수근무자를 지정하여 확진자 발생상황을 대비한 분리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중부발전은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SDGs 솔루션] 플라스틱 폐기물을 타일 형태로 변환하는 태양열 'Trashpresso'



[SDGs 솔루션] 태양열 'Trashpresso'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타일 형태로 변환합니다.

*Trashpresso*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아름다운 타일로 재활용하여 디자인 또는 시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동식 자동 자가 동력 재활용품 처리 공장입니다.

Trashpresso 공장은 쓰레기를 트렌디한 스타일의 타일로 변환하는 12 미터에 달하는 수송 가능한 태양열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는 플라스틱을 타일로 만드는 가공 장치와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태양열 패널 장치로 구성되어 있어 전력망이 필요 없습니다. 병, 쿠키 상자, 우유병, 접시, 커피 컵을 포함한 모든 플라스틱 품목을 타일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플라스틱 잔여물을 걸러내는 데 사용되는 물도 공정으로 다시 순환되어 추가적인 물 소모가 거의 없습니다.



Trashpresso의 결과물은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첫째, 폐플라스틱을 이용해 장식이나 건축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업사이클링 건축 타일을 제작합니다. 이는 교육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영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이동이 용이해, 다양한 위치에서 쉽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Trashpresso는 티베트 고원과 중국과 유럽 전역의 도시들을 순회한 바 있으며, 비교적 손 쉽게 제작 가능한 아름다운 제품들을 통해 폐기물에 대한 인식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Trashpresso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 동안, 아시아와 유럽 전역의 5개 전시에서 플라스틱병 1만 2600개(타일 2520개)가 재활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Trashpresso 는 어디에서나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거리와 에너지의 장벽을 극복합니다."

- 아서 황(Arthur Huang), Miniwiz 설립자 겸 CEO

왜 Trashpresso 에 주목해야 할까요?

2015 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6,300,000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 약 9%는 재활용되었고, 12%는 소각되었으며, 79%는 매립지 또는 자연에 매립되었습니다. 이 기업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악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며, 플라스틱 폐기물이 작은 노력을 통해 어떻게 가치 있는 물건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루션이 다루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타일 1 개를 생산하는 데는 물병 5 개 또는 병뚜껑 50 개가 필요합니다, Trashpresso 는 시간 당 최대 50kg 의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UNGC 회원 뉴스

1. 서울주택도시공사 인권 토크콘서트 '직장 내 혐오표현과 차별' 개최



변영주
영화감독



이은경
UNGC실장



홍성수
숙명여대교수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2주년
SH인권센터 개소 1주년 기념

인 TALK

당신의 말이 누군가를 해치는 칼이 되지 않도록

CONCERT

유튜브 청신호tv
2021.7.6.(화) 14:00



주제
직장 내 혐오표현과 차별

참여
온라인(SH공사 공식유튜브 채널 '청신호tv')

대상
SH공사 임직원 및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프로그램
주제강연
혐오와 차별을 넘어서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말이 칼이 될 때' 저자)

대담
직장 내 혐오표현과 존중일터
변영주 영화감독, 홍성수 숙명여대교수, 이은경 UNGC실장
'실시간 댓글로 대담에 참여해 주세요'

EVENT



시청자 대상 이벤트
진행 예정

2. 블랙록이 '아름답다' 평가한 포스코의 ESG 시스템



-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으로부터 포스코의 ESG 시스템이 "아름답다"는 극찬을 받음
- 포스코는 1995년 환경보고서 발간을 시작으로, 2018년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선포한 뒤 매년 '기업시민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지속가능보고서를 작성해 옴
- 또한 미국·EU(유럽연합) 중심으로 진행되는 탄소 국경세 도입 움직임 등 글로벌 탄소규제 강화 추세에 대해서도 긴밀히 대응하고 있음
- 포스코 기업시민실의 김훈태 ESG 그룹장은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투명하게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속가능보고서를 외부 컨설팅을 통해 작성하지 말고 자사의 리스크 요인을 살펴 이를 정리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게 ESG 경영의 장기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강조함

머니투데이

3. 우리은행, 여성 리더 양성 '우리 WING' 1기 발대식



- 우리은행은 여성 리더 양성을 위한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인 '우리 WING' 1기 발대식을 지난 18일 실시함
- 선발된 이들은 국내 대표 여성 리더십 및 코칭 전문가로부터의 그룹코칭 및 전문가 초청 특강 프로그램을 통해 리더십 역량 강화는 물론, 사내멘토로 임명돼 여성 직원에 대한 멘토링을 실시할 계획임
- 권광석 우리은행장은 "이번에 선발된 우수한 인력들이 균형감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여성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여성 리더 양성 프로그램은 중장기적 로드맵을 갖고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이코노믹리뷰

4. SK 하이닉스, 협력사 대상 1000 억 규모 'ESG 펀드' 조성



- SK 하이닉스가 협력사들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1000 억원 규모 ‘ESG 펀드’를 조성함
- 이를 통해 환경·사회 분야 개선 목적의 자금이 필요한 협력사들은 시중보다 낮은 이자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 또한 하이닉스는 협력사 금융지원을 위해 산업, 농협, 하나, 우리은행과도 협약을 맺음
- 이 밖에도 하이닉스는 무상 컨설팅 프로그램의 강화를 통해 협력사의 ESG 경영 역량 향상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며, 그 일환으로 이번 연도에는 환경안전 분야 컨설팅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임
- 관계자, "반도체 공급망의 근간이 되는 협력사의 ESG 경영기반 조성에 SK 하이닉스 상생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향후 1년간 ESG 펀드 이용 추이를 분석한 후 규모 확대 등을 검토하는 등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힘

뉴스스

5. 페트병이 티셔츠로...GS의 '업사이클링 매직'



- GS 리테일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인 GS 더프레시는 매장에서 발생한 음식 폐기물로 퇴비를 만들어 키운 '자원 선순환' 포도와 배를 판매함
- GS25 역시 이르면 이달, 투명 페트병으로 만든 의류를 판매할 예정이며, 편의점에서 수거한 투명 페트병을 아웃도어 브랜드 '블랙야크'가 재활용하여 옷으로 재탄생시킬 예정임
- GS25 측은 이를 위해 점포에서 소비되는 투명 페트병의 수거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생수 상품을 무라벨로 전환할 계획이며 직원들이 입을 유니폼도 투명 페트병으로 제작해 가맹점에 공급할 방침임
- GS 리테일의 한 관계자는 "제품의 생산과 유통, 재활용이 선순환되는 친환경 모델을 구축했다"고 밝힘

한국경제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 회원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UNGC에 가입한 회원사는 3 곳입니다.

- CJ E&M
- GS 리테일
- SK 브로드밴드

2. COP/COE 제출회원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3개 회원사가 COP 및 COE를 제출했습니다.

- 기술보증기금
- 한전 KDN
- 충청남도개발공사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첫 COP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첫 COE를 제출하고, 이후 매 2년마다 COE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년 후에도 COP/COE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2021년도 연회비 미납 회원사 안내

<1-2분기 연회비 미납 회원사 (매출액 USD 5,000만 달러 이상 기업)>

한국동서발전, 한전 KPS, CJ 대한통운

<1-2분기 연회비 미납 회원사 (SME,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

슬로워크, 이알엠코리아, 길바이오, 사람과세계경영학회, 한국자유총연맹,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수목원관리원, 부산경제진흥원

2019 년부터 시작된 UNGC 글로벌 연회비 정책의 변화로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사는 본부 및 협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연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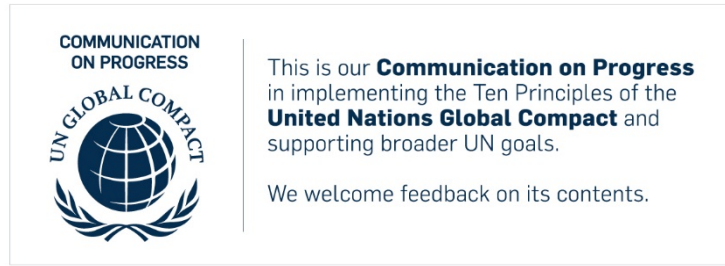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T. 02-749-2149/50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 COE 를 제출한 비영리 단체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 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 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

담당자: 박희원 연구원